

## 뷰노,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Hativ P30' 식약처 인증 획득

언제 어디서든 30초 내 간단하게 측정...6유도 방식으로 정확한 분석 결과 제공



[참고이미지] Hativ P30 활용 예시

[2022-10-11] 글로벌 의료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뷰노(대표 이예하)는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Hativ P30'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뷰노가 지난 7월 인증이 완료된 Hativ Pro에 이어 두 번째 출시한 하드웨어 의료기기로서, 심전도 데이터를 측정 및 기록하는 것을 넘어 심전도 분석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한다.

Hativ P30은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정상동리듬, 심방세동, 서맥, 빈맥 등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다. 작고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30초 내 간단하게 심장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는 연결된 모바일 앱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6유도(6-Lead) 정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 방식이 간단하면서도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등을 활용한 방법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10개의 전극을 몸에 부착해 동시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12유도 방식을 표준으로 한다. 반면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패치 등의 기기에서는 단일 유도(Sigle Lead) 심전도만을 제공해 얻을 수 있

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Hativ P30은 간편한 측정으로 6유도 측정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에서 주기적인 심전도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뷰노는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B2C 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지난 해 10월 식약처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된 인공지능 기반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뷰노메드 딥ECG™를 탑재한 가정용 AI 의료기기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 통합 건강관리 브랜드인 'Hativ(하티브)'를 런칭하고, Hativ P30과 더불어 만성질환 건강관리 앱과 혈압계, 체온계 등을 선보임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으로 외연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에하 뷰노 대표는 "Hativ P30은 뷰노의 우수한 기술력과 심전도 데이터 분석 연구 역량이 집약된 제품으로,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심혈관 질환을 적시에 발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며 "향후 통합 건강관리 브랜드를 선보임으로써 환자 중심 헬스케어를 실현하고 미래 의료의 방향인 예방적 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 # #

## [자료 문의]

VUNO Inc. Communication

박재민 매니저

010-3909-8004

jaemin.park@vuno.co